



9면

'무주 한풍루, 보물 가치 충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위해 머리 맞대다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음 1월 14일) 제27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국내 탄소산업 컨트롤타워 '문 활짝'

### 국가기관 승격 탄소진흥원 출범

소재·부품 10개 자립화  
신규 고용창출 2000명 목표

시, 탄소복합재 기업 입주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속도

도, 탄소산업 수도 조성  
지역경제 대도약 시키기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전주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해온 탄소상용화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는 탄소산업을 정부에서 직접 챙겨 육성하는데, 전주가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소재 국산화 전진기지가 될 탄소소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2024년까지 탄소관련 기업과 R&D(연구개발)기관, 기업지원시설 등이 집적화될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도 조성되고, 국가기관인 진흥원 개원에 따른 탄소관련 해외수출 사업과 연구개발 지원, 창업 지원사업 등도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송하진 도지사, 산업부 박진규 차관, 김승수 전주시장, 정문헌·김성주·김윤덕·안호영 국회의원, 효성첨단소재 황정모 대표 등 기업인이 참석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탄소진흥원) 개원식을 가졌다. 이로써 탄소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



2020년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공식 출범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식이 24일 본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송하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도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으로 발전전략 이행과 로드맵 보완, 사업 기획·집행, 기술·서비스 실증 등을 총괄·조정하게 됐다.

정세균 총리는 개원식에서 "소재혁신과 융합을 통한 산업 체질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전북의 탄소산업에 대한 힘을 실어 주었다. 송하진 도지사도 "지역을 대표해 온 연구기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 됐다"며 국가기관 승격을 경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기관 승격을 시작으로 전주가 우리나라 탄소소재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성정을 자

신했다. 산업부는 이날 개원식에서 2030년까지 탄소소재 융복합 기업 1,600개사, 강소기업 25개사, 소재·부품 10개 자립화, 매출 10조, 수출 3조, 신규 고용 창출 2,000명을 목표로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전주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가기관 승격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탄소복합재 관련기업들이 입주할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탄소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탄소복

합재 상용화의 전진기지가 될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 1,770억원을 투입해 효성탄소섬유 전주공장 인근 약 65만 6,000㎡(약20만평) 부지에 탄소관련기업 등 70여개의 기업과 20여개 R&D(연구개발)시설, 20여개 지원시설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국가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전주시가 지난 2003년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의 탄소 전문 연구기관으

로, 그간 탄소소재 및 융합부품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장·단기 공동 연구개발 사업과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및 창업보육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끌어갈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하면서 전주의 탄소산업은 이제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진흥원, 정부, 전북도와 함께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탄소진흥원과 더불어 탄소산업의 기술 국산화와 함께 세계적 수준을 갖춘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해 전북 경제를 대도약 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과 탄소소재 국가산단,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소부장 특화단지 등 기업 집적화기반(인프라)을 활용한 탄소진흥원 연계 사업을 발굴해 시너지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가 탄소산업 발전전략에 맞춰 탄소진흥원, 도내 대학 등과 협력해 탄소 분야 우수 산업인력 및 전문연구인력의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으로 전북이 씨를 뿌린 탄소산업이 혁신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영정지원의 자력으로 끊임없는 혁신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전주시가 지난 2003년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의 탄소 전문 연구기관으로, 그간 탄소소재 및 융합부품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장·단기 공동 연구개발 사업과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및 창업보육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끌어갈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하면서 전주의 탄소산업은 이제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진흥원, 정부, 전북도와 함께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탄소진흥원과 더불어 탄소산업의 기술 국산화와 함께 세계적 수준을 갖춘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해 전북 경제를 대도약 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과 탄소소재 국가산단,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소부장 특화단지 등 기업 집적화기반(인프라)을 활용한 탄소진흥원 연계 사업을 발굴해 시너지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가 탄소산업 발전전략에 맞춰 탄소진흥원, 도내 대학 등과 협력해 탄소 분야 우수 산업인력 및 전문연구인력의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김윤상기자

## '그린성장 실현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전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관련기사 16면)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공동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소순열 전북대 교수를 포함해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13명), 기재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북도지사등 정부위원(13명),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돼 있다.

### 제25차 새만금위원회... 2단계 기본계획 발표

이날 '새만금위원회'는 그동안 지원(13명), 기재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북도지사등 정부위원(13명),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돼 있다.

자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 총리가 직접 지시한 바에 따라,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일회 → 일2회)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계성 및 창출에 집중했다.

/유호상기자

##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완주 방문의 해 홍보' 후원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2021~2022년 완주 방문의 해를 맞아 보조상표를 통해 홍보 후원한다.

완주군은 지역 인지도 제고 및 관광역량 강화를 위해 2021~2022년을 완주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완주군에 공장이 있는 하이트진로는 완주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와 전체적인 불업 조성을 위해 보조상표를 통해 홍보 후원하기로 하였다.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에서 생산 중인 하이트 맥주 총 1만병(500ml)에 행사물 홍보하는 보조라벨을 부착하고 해당 제품을 전북 전역에 유통한다.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완주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향후에도 지역의 발전 및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향토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